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이해 및 지도방법

LESSON 1. 인간, 사회, 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점

LESSON 2. 행복의 의미와 기준,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 1

## 인간, 사회, 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점

### 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

이번 단원의 첫 번째 성취 기준은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입니다. 첫 번째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다음의 2가지 핵심 질문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사회현상을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 사회,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왜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가?

#### (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

그럼 첫 번째 성취기준에 따른 첫 번째 핵심질문인 “사회현상을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 우리는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 물이 담겨 있는 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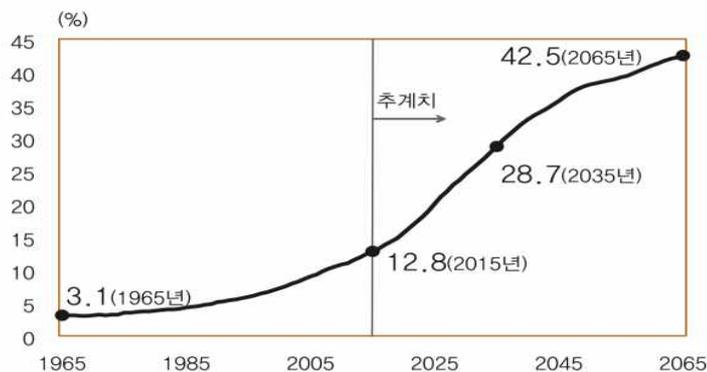
여기 물이 반 정도 담겨 있는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사람은 이 컵의 물을 보고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물이 반 밖에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사회 문제를 두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르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사물이나 상황, 경험하는 현상을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바로 ‘관점’이라고 합니다. 즉, 관점은 세상에 대해서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세상에 매우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의 지식에만 의존하거나 제한된 관점에서 인식한다면 인간, 사회, 환경의 상호 작용 속에 담긴 복잡하고 다면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인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나) 시간적 관점

세상을 시간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의 현재 모습을 그 현상이 있기까지 변화의 발자취를 통해 시대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적 관점은 “시간 속에서 인간과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할만한 과거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물질적 토대는 오랫동안 축적된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접하는 사건이나 상황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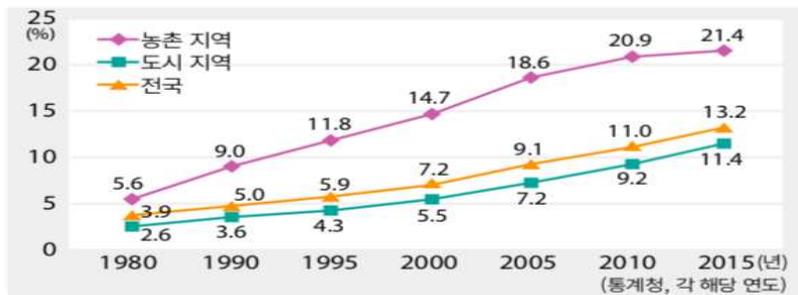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럼 ‘고령화 현상’이라는 사회현상을 시간적 관점에서 한 번 이해해볼까요? 인구고령화는 산업화의 성숙에 따른 인구변천의 보편적인 과정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산업화의 진행 과정에서 인구증가율이 상승하다가 산업화가 성숙단계에 이르면 인구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저출산 현상은 과거 인구 정책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억제정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출산율이 크게 떨어진 1990년대 중반에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 합계출산율이 약 3명에서 1980년대 말 약 1.5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이후 회복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이 문제되기 시작하자 인구정책을 선화하였지만 이미 상당히 낮아진 출산율과 더불어 선진국형의 출산율 저하현상이 진행되면서 어느 나라보다 더 급격한 속도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고, 그와 함께 고령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다) 공간적 관점

세상을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을 이해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장소, 지역의 위치나 형태에 관한 공간 정보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간적 관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변화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간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 사회, 환경은 공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얽혀 있고, 그 관계를 파악하는 데 공간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 농촌과 도시의 고령인구 비율 |



그럼 고령화 현상을 공간적 관점으로 이해해볼까요? 그래프에서 읽을 수 있듯이, 농촌 지역의 고령화는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촌이 도시보다 20년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와 산업이 도시로 집중 되었습니다. 반면 농촌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 기반이 약화되어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농촌은 경제기반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주거 환경과 생활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장년층 인구가 더 나은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찾아 도시로 꾸준히 빠져나가면서 농촌의 고령인구 비율이 매우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 (라) 사회적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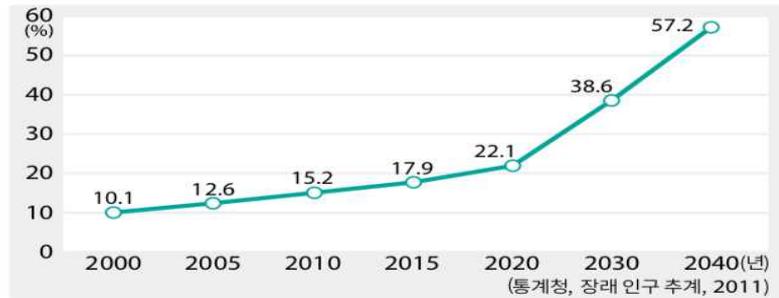
세상을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관점은 “일상생활에서 법과 제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 구조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나 배경을 이해하고, 그 현상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려면, 그와 관련된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회적 관점에서 고령화 현상을 이해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년 부양비는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 복지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되지요. 이러한 현상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고령층 빈곤화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마) 윤리적 관점

|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 추이 |



|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의 변화 |



세상을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 차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리적 관점은 “개인의 이익이 우선인가, 사회의 이익이 우선인가? 이해 갈등의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관점은 다양한 사회 현상을 도덕적 가치에 따라 평가하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규범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윤리적 관점에서 고령화 현상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부양은 가족만의 책임이라는 가치관이 약화되고,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 윤리적 가치관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노인을 반드시 부양해야 한다는 예전의 가치관에서 이제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가족화로 사회규범과 제도가 변화하면서 공적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가족의 빈자리를 채울 체계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라는 하나의 현상을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현상들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인간, 사회, 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점

### (1) 인간, 사회, 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성취기준에 따른 두 번째 핵심질문인 “인간, 사회,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왜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가?”에 대해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은 사회 현상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사회 구조나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고령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고령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맥락을 이해하고 고려하여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령화 현상을 단순히 시간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분석하면, 고령화의 정도가 도시와 농촌이라는 공간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사회 복지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회적 관점의 분석은, 노인 부양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관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함께 고려할 때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사회현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고,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서 통합하여 이해해야 복잡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통합적 관점입니다. 통합적 관점이란 하나의 사회현상에 대해 시대적 배경과 맥락, 장소와 영역 및 네트워크 등의 공간 정보,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영향력, 규범적 방향성과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간,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 및 환경을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 (2) 인간,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은 현상을 인식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틀 안에서 사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고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지식의 탐구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적·공간적·사회적·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통합적 관점을 가지려면 의식적으로 네 가지 관점에서 탐구하고 이를 통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네 가지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탐구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 선정한 주제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탐구합니다. 탐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는 탐구 내용을 종합하여 현상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통합적 관점에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 행복의 의미와 기준

이번 단원의 두 번째 성취 기준은 “[10통사01-02] 사례를 통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의미를 성찰한다.” 입니다. 두 번째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다음의 2가지 핵심 질문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 행복의 기준은 보편적인가?

- 삶의 목적으로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이러한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탐구해야 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1) 시대와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

그럼 첫 번째 질문 “행복의 기준은 보편적인가?” 에 대해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 행복이란 무엇일까?

| 디오게네스 |



[출처 : 1882,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작]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행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 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행복은 사람들의 ‘느낌’ 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느낄까요? 행복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 만족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느끼는 보람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생애에 한 벌의 옷과 한 개의 지팡이와 자루를 메고, 통 속에서 살았던 그는, 그 당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를 찾아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서라'고 했다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디오게네스가 추구했던 행복은 가능한 한 작은 욕망을 가지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며,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행복은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대와 지역에 따라 행복의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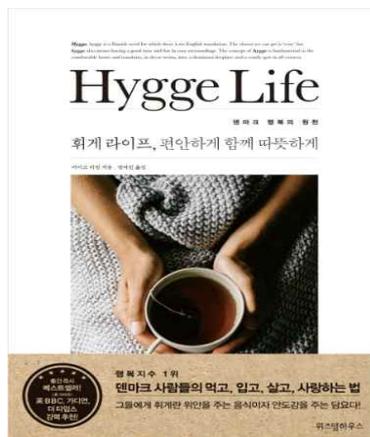
### (나) 시대 상황과 지역 여건에 따른 행복의 기준

행복은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결핍되어 있는 요소, 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욕구로 작용하고 그것이 충족되는 것이 그 시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행복을 철학이라는 지적 활동을 통해 얻는 지혜와 덕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여 철학적인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빈번했던 서양의 헬레니즘 시대 사람들에게 행복은 세상일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서양의 중세는 종교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신의 구원을 추구하고, 신앙을 통해 절대자에게 귀의하는 것에 개인의 행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역사적 사건이나 산업화 등의 사회 변동이 행복의 기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던 시대에는 나라의 독립이 우리 국민의 행복의 기준이었고, 산업화 시대에는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행복의 기준은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여건은 행복의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 휘게 라이프 |



[출처 : 마이크 비킹 / 위즈덤하우스]

덴마크는 대표적인 북유럽의 행복 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휘게(hygge)' 문화로 유명한데요. '휘게'는 웰빙이라는 뜻의 노르웨이어에서 유래한 덴마크어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단란함과 편안한 분위기를 말합니다. 즉 휘게는 '편안하고 아늑한 상태를

추구' 하는 덴마크식 생활양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휘게는 간소한 것, 그리고 느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휘게는 새것보다는 오래된 것, 화려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 자극적인 것보다는 은은한 분위기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취에서 오는 만족감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얻는 정서적 안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덴마크의 휘게 문화는 덴마크의 자연환경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덴마크는 빙하가 퇴적되면서 만들어진 평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 년 내내 바람이 많고, 겨울이 몹시 추운 기후입니다. 이렇게 자연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타인과 교류하면서 따뜻한 감정을 얻는 것이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잦은 내전이 발생하는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나 정착지를 떠나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척박한 기후와 자연환경 때문에 국민의 다수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정치적 안정과 빈곤 탈출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며, 민족이나 종교 갈등으로 분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평화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와 산업 역시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와 산업에 따라 행복의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기후와 지형 등 자연환경은 행복의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거나, 반대로 환경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와 산업, 종교와 같은 인문환경도 행복의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2) 삶의 목적으로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

그럼 두 번째 질문인 '삶의 목적으로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대체로 즐거운 삶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한 행복의 정의에도, 기쁨과 즐거움, 만족이라는 단어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모든 종류의 기쁨, 즐거움, 만족이 모두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넌 언제 행복해?'라는 질문에 '먹을 때요.', '놀 때요.', '게임할 때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즐거움을 감각적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감각적 즐거움만으로 행복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물론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만끽하며 사는 것도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합니다. 하지만 쾌감이나 즐거움만으로 행복을 정의하는 쾌락주의적 접근은 역설적으로 불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각 기관은 어떤 자극이든지 그것이 계속되면 그 자극에 차츰 적응하여 덤덤한 상태가 됩니다. 즉 감각적 즐거움을 위한 순간의 쾌락은 더 강한 쾌락을 원하게 하고, 중독이 되거나 지속적인 불만족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만족감을 느끼는지와 같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진정한 행복이란 일시적이고 감각적 만족이나 즐거움, 눈앞의 단기적인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적이고 본질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사진 삽입>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에는 그 나름의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도 목적이 있는데, 그는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의 실현에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또한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을 실현하려면 삶의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삶의 지혜를 갖추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이성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한 분석을 더해 자아를 실현하면서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인간은 이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행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삶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 2)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단원의 마지막 성취기준은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입니다. 이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다음의 핵심질문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적 조건은 무엇일까?

이러한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탐구해야 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1)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적 조건

그럼 이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질문인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적 조건은 무엇일까?” 에 대해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 (가) 행복의 사회적 조건

앞에서 우리는 개개인마다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한 기준과 조건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감정은 주관적일지 모르지만 행복은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에는 공통적인 몇몇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공통 요소가 바로 행복의 사회적 조건 아닐까요? 행복한 삶을 위해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조건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의 사회적 조건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해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을 찾고, 모든 사회와 사람들에게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적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행복의 사회적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나) 질 높은 정주환경

#### | 오스트리아 빈 전경 |



오스트리아 빈은 인구 약 210만 명의 문화, 예술, 교육, 환경의 조건을 두루 갖춘 도시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조사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곳이죠. 이곳은 베토벤, 모차르트, 요한 슈트라우스 등과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배출한 음악의 도시이면서 다양한 공원과 박물관도 많아서 시민들이 여가와 예술 활동을 생활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고, 도시의 절반이 숲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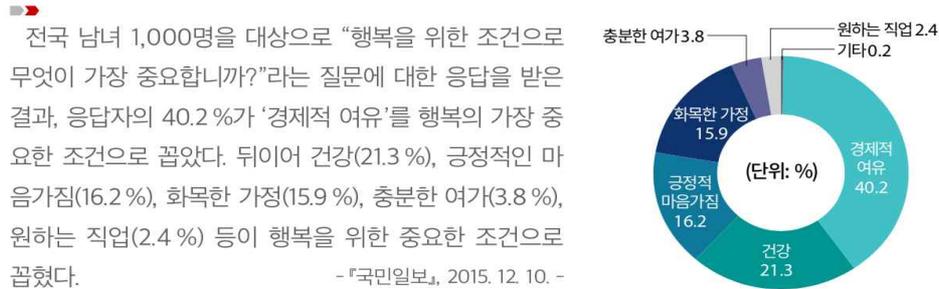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이 도시도 과거에는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폐결핵이 만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으로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 임대 주택을 건설하였고, 주거 법을 소유 중심에서 임대 위주로 전환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엄격히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공교육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지금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지방 정부에서 노인 개개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떠한 공간에서 살아가는가, 즉 정주환경의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주공간은 일정한 지역에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거지를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머무르며 생활하느냐가 그 사람들의 행복에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 높은 정주환경의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스트리아 빈의 사례에서 상당부분 그 조건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깨끗한 자연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물, 대기, 토양 등이 오염된 환경 속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안 서비스, 보건 및 위생 서비스, 학교 및 교육 서비스, 문화 서비스 등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주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나라는 도심 내에 녹지 공간을 늘리고 문화 공간 및 의료 시설을 확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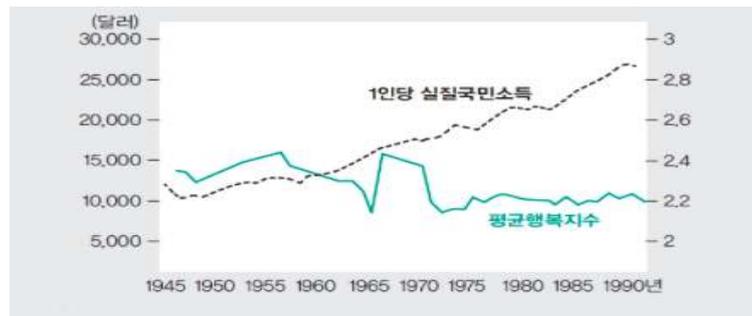
## (다) 경제적 안정

### | 경제적 안정 통계 자료 |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충족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와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은 바로 경제적 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와 교육, 의료 등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라는 말에 동의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 | 미국인의 행복지수 추이(이스털린의 역설) |



그러나 소득과 행복의 관계는 항상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소득과 행복감은 비례할까요? 이와 관련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인데요. 소득이 행복과 관련 있다는 점은 맞지만,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소득이 늘어나면 선택할 기회가 많아져 더 자유롭고 건강해지므로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 부유한 국가의 국민이 가난한 국가의 국민보다 더 행복하고,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국민의 행복 수준은 더 높아진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이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 수준이 높아도 소득의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 사는 국민은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지 않을까요? 내가 속한 사회에서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노력해도 더 나은 위치로 올라가기 어렵다면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소득이 높은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적정한 소득을 고르게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기본 조건들이 충족되고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작아져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질 때 국민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라) 민주주의의 실현

경제적으로 아무리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사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누군가의 명령에 강제로 따라야 한다면 어떨까요? 독재 국가나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정치 과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국민이 기본적인 권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기는 힘들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치주의와 선거 제도, 언론의 자유 보장 등을 통해 권력자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이것이 정치 과정에 반영되어 정책으로 산출되므로 시민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은 그 자체로 만족감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근대 시민 혁명,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등 사진 삽입> 실제로 근대 시민 혁명을 비롯하여 노동자 계급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차티스트 운동, 여성들의 참정권 투쟁,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 우리나라의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의사 결정의 자유’와 ‘참여’를 통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이 인간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마) 도덕적 실천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행복감을 더 많이 느꼈을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쓴 사람이 행복감을 더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즉,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는 것인데요. 이 실험에서 재밌는 것은 남을 위해 많은 돈을 썼는지, 적은 돈을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위해서 5달러를 쓴 사람도 20달러를 쓴 사람과 같게 행복감이 증가한 것입니다. 나눔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베푸는 것이 행복을 위해서 더 현명한 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단순히 ‘돈’을 토대로 한 실험이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을 아끼고 배려하는 것, 즉 도덕적 감정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를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덕적 실천은 어려운 사람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실천하는

사람의 행복 실현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을 돕는 사람은 자신을 '타인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신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만의 이익이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과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비도덕적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그러한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 이웃에 대한 관용적 태도도 필요합니다. 도덕적 실천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작은 손길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생각하고 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나와 공동체 모두의 행복 실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